

정율성 생가 규명 해괴한 결론

고증위, 수개월간 검토하고도 불로동·양림동 둘 다 인정

정율성(鄭律成·1914~1976) 선생 생가 고증위원회가 광주시 동구 불로동과 남구 양림동 양쪽을 모두 생가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수년째 반복된 지역 내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9명으로 생가고증위원회까지 구성했으나, 위원회조차 하동정씨 종친회와

남구청 및 가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율성 선생 생가고증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갖고 "하동정씨 종친회에서 주장하는 동구 불로동 163번지와 남구청이 주장하는 양림동 79번지 모두 생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10년대 동구 불로동과 남구 양림동이 당시 광주군 부동방면 내에 있었으며, 출생 당시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나 실제 출생한 곳, 출생 후 자란 곳 등을 모두 생가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생가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발굴하지 못하고 출생장소를 의미하는 '생가(生家)'의 의미를 확대하

면서까지 생가를 2곳으로 지정, 고증위원회를 구성한 광주시 역사행·재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증위원회는 "현재 불로동은 정율성 선생 부모의 본적지이고, 현재 양림동은 정율성 선생이 성장했던 곳 이면서 정율성 선생 어머니와 형이 거주했던 곳"이라며 "현재의 불로동

과 양림동을 하나로 묶어 '정율성 생장 구역'을 설정해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증위원회의 지난해 11월부터 회의와 현장 검증, 관련 증인 청취를 해왔는데, 생가와 관련해 정씨 종친회와 남구청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 선생 생가는 남구청이 지난 2004년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남구 양림동 79번지를 생가터로 지목하고 복원에 나섰으나 정씨 종친회가 동구 불로동이 생가라고 맞서면서 마찰을 빚었다.

정율성은 청년 시절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인민해방군군인 '팔로군 행진곡'과 중국의 아리랑 격인 '연안송' 등 360여곡의 노래를 창작했으며 중국의 근현대 3대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9분 / 해질 19시 11분 / 달뜨기 18시 42분 / 달지기 05시 22분

"덥다 더워"

가끔 구름 많겠으며,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다.

| | | |
|-----|----------|--------|
| 광주 | 구름 많겠음 | 25/33℃ |
| 목포 | 구름 많겠음 | 25/30℃ |
| 여수 | 구름 많겠음 | 25/30℃ |
| 완도 | 구름 많겠음 | 24/32℃ |
| 구례 | 오후 한때 비 | 24/34℃ |
| 해남 | 구름 많겠음 | 24/32℃ |
| 장흥 | 구름 많겠음 | 24/32℃ |
| 고흥 | 구름 많겠음 | 24/32℃ |
| 순천 | 구름 많겠음 | 25/33℃ |
| 영광 | 구름 많 | 24/32℃ |
| 진도 | 구름 많겠음 | 25/32℃ |
| 전주 | 흐리고 가끔 비 | 24/32℃ |
| 남원 | 구름 많음 | 24/33℃ |
| 옥산도 | 구름 많음 | 23/29℃ |

| 지역 | 바다 | 중랑 | 파고 | 지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불쾌지수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0.5~0.5m | 0.5~1.0m | 높음 | 경고 | 매우높음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동~남 | 0.5~0.5m | 0.5~1.0m | | | |

| 지역 | 바다 | 중랑 | 파고 | 일몰 | 일출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동~남 | 0.5~0.5m | 0.5~1.0m | 목포 02:08 | 07:23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동~남 | 0.5~0.5m | 0.5~1.0m | 여수 08:46 | 02:50 |
| | | | | 21:18 | 14:50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5(수) | 26(목) | 27(금) | 28(토) | 29(일) | 30(월)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25/31 | 24/31 | 24/30 | 24/30 | 25/31 | 24/31 |

무너질까 못질도 못해 ... 매일 불안불안

'철거대상' 광주 Y아파트 9세대 주민들

4년 간 거래 '0' ... 갈 곳도 없어 막막

"비만 오면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당장 떠나고 싶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23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Y아파트 101동 앞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외부에는 이주를 요구하는 가로 1m·세로 1m 크기의 '재난위험시설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지난 1983년 11월 11일 준공된 5층 규모 아파트의 외벽은 1~2cm 크기로 균열된 상태였고, 각 세대의 유리창·방충망은 깨져 있었다. 5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은 좌측으로 기울어진 채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1층 계단을 따라 5층까지 올라갔지

만 인기척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텅 빈 도시를 연상케 했다. 1층에 설치된 우편함도 깨끗했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입주주민들은 무너져가는 아파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입주민들은 언제 붕괴 될지 모를 아파트 안에서 가마솥 더위와 싸우고 있었다. 현재 Y아파트 101동에 거주민은 9세대(29명). 이에 앞서 11세대는 지난 2005년 12월 13일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된 이후 모두 집을 쫓았다.

서구는 같은 해 5월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Y아파트는 구조안전상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철거'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입주주민들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집을 판 돈으로 이사



23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Y아파트 101동 외벽에 설치된 재난안전시설 표지판. 한 입주주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를 가야 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거래 실적(개인 거래 등 제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유 재산인 관계로 이주보상비도 없다. 서구에서 이사비용 명목으로 40

만~70만원 가량 지원하는 게 전부다. 입주민 문모(52)씨는 "25년 전 당시 6200만원을 주고 입주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받을 지 모르겠다. 전세를 내놓을 적도 있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교원 정기인사

260명 승진·전보

전남은 오늘 발표

광주교육청은 23일 초·중등 교장과 교감, 교육 전문직 등 26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6면> 매곡초 오도근 교감이 문흥초 교장으로, 유덕중 박영달 교감이 신광중 교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초등 15명, 중등 6명 등 모두 21명이 교장으로 승진했다.

대폭 확대된 교장 공모제 시행에 따라 운영동 광주계립초 교감이 무등초로, 김진구 상일여고 교감이 같은 학교 교장으로 승진하는 등 초등 8명, 중등 4명 등 모두 12명이 공모제 교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일반직 인사 기준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24일쯤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에도 덥다"

11월까지 평년보다 높은기온

올 가을은 대기 불안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이 많으며, 태풍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2010년 가을철 전망"을 발표하고 오는 9~11월 기온은 평년(14~17도)보다 높으며, 강수량도 평년(232~279mm)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태풍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

상청은 내다봤다. 태풍은 평년(0.9)에 비해 많은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월 광주·전남지역 평균기온은 평년(20~22도)보다 높고, 강수량도 평년(131~172mm)보다 많았다.

10월은 평년기온(14~17도)보다 높겠고, 평년강수량(48~60mm)보다 많은 양이 예상된다.

11월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이웃과 소통합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밝힙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1-227-9940 (광주광역시 서구) / 순천점: 061-752-9940 (순천시) / 목포점: 061-227-9970 (목포시) / 부산점: 010-867-2422 (부산)

칠만표 방수제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재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방수하면 100% 방수!!

방수제 칠만표는 20년 이상의 방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방수제입니다.

목재, 콘크리트, 벽돌, 타일, 석재 등 방수제를 칠하면 방수 효과가 높습니다.

02-268-5118 / 011-9435-0441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

전기요금 평균 3.5% 인상

기존 3.0kw 이하 설치비용 추가 설치 가능

설치효과 월 평균 90,680 원 절감

20kw~30kw 기준 200만원~1억원 설치

02-268-5118 / 011-9435-0441